

리뷰논문 특집을 시작하며

정부학연구는 1993년 발간 이래로 차별성을 가지고 행정학계의 담론을 선도해 나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학연구는 정기적인 기획특집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 뿐 아니라 최근 중요 정책 이슈에 대한 분석 등을 폭넓게 소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정부학연구 편집위원회는 2016년부터 3호를 시작으로 매년 3호에 리뷰논문 특집을 게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리뷰논문은 특정 주제의 연구경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연구자들이 그 주제의 연구 흐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좋은 리뷰논문에는 특정 주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연구자의 생각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이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저널 리스트에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Annual Review of Sociology*와 같이 리뷰논문을 주로 게재하는 저널들이 포함되어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저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학 분야의 저널 중에는 리뷰논문을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저널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부터 시작하는 정부학연구의 새로운 시도는 좋은 리뷰논문의 아웃렛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행정학 분야에서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세 편의 리뷰논문 중 두 편은 복지국가, 한 편은 관리론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태일 외의 논문은 1960년대 이후 본격화 된 복지국가에 대한 거시적 연구의 흐름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60, 70년대의 진행된 복지국가의 기원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최근 유럽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에 이르기 까지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Esping-Andersen 등 핵심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양재진의 논문은 복지국가 중에서도 작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의 사회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국가 연구는 대체로 스웨덴, 독일 등 복지국가의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큰 유럽형 큰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2 「정부학연구」 제22권 제3호(2016)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는 오히려 이와 같이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작은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한 양재진의 연구는 복지국가 연구 전반을 다룬 김태일 외의 연구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완의 논문은 지난 60년 간 한국의 행정학자들이 수행한 관리론에 대한 연구를 시의성, 특수성, 적실성, 창의성의 기준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의 두 논문이 복지국가와 작은 복지국가 연구의 세계적인 흐름을 소개했다면, 김동완의 논문은 관리론 연구 흐름을 국내 학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맞는 보다 적실성 있는 연구를 위해선 특정 주제에 대한 세계적 연구 흐름 뿐 아니라 우리 학계에서의 연구를 정리하고 함의를 끌어내려는 이러한 노력도 분명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학연구의 기획논문 특집이 행정학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과 이제 연구를 막 시작하는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연구의 길잡이 뿐 아니라 연구 담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각 주제별 연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해당 분야의 연구를 통해 오랫동안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리뷰논문을 통해 후속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일 것입니다. 정부학연구의 기획논문 특집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편집위원장 구교준